



## 필사본 『花郎世紀』로 본 대가야와 신라의 결혼동맹

The Matrimonial Alliance between Daegaya and Silla Kingdom Viewed through the Manuscript “Hwarang Segi”

---

<b>저자</b> (Authors)	정동락 Jung, Dong-lak
<b>출처</b> (Source)	<a href="#">한국고대사탐구 24</a> , 2016.12, 185-218 (34 pages) <a href="#">Sogang Journal of Early Korean History 24</a> , 2016.12, 185-218 (34 pages)
<b>발행처</b> (Publisher)	<a href="#">한국고대사탐구학회</a> Society for the Study of Early Korean History
<b>URL</b>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087845">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087845</a>
<b>APA Style</b>	정동락 (2016). 필사본 『花郎世紀』로 본 대가야와 신라의 결혼동맹. 한국고대사탐구, 24, 185-218.
<b>이용정보</b>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30 15:54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 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필사본 『花郎世紀』로 본 대가야와 신라의 결혼동맹\*

정 동 락\*\*

- I. 머리말
- II. 기존의 사료로 본 결혼동맹
- III. 異腦王과 결혼한 新羅王女
- IV. 결혼동맹 이후 신라의 대가야 인식
- V. 맺음말

### 【국문초록】

필사본 『화랑세기』는 대가야와 신라의 결혼동맹, 대가야의 멸망, 대가야의 王室世系, 멸망 이후 대가야 사람들의 동향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사료가 부족한 대가야사와 관련된 새로운 視覺과 史實을 제시해 준다. 만약, 이 책이 僞書가 아니라면 대가야사 연구의 중요한 사료로 인용되어야 마땅하다. 반대로 朴昌和에 의해 지어진 책이라고 하더라도 대가야사와 관련된 새로운 史實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연구사나 사학사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필사본 『화랑세기』는 진위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대가야사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러한 시각에서 522년에 체결된 대가야와 신라의 결혼동맹에 대해 기존의 史書와 비교·검토하고, 그를 통해 필사본 『화랑세기』가 제시한 大加耶像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522년 대가야의 異腦王과 결혼한 新羅王女는 兩花공주였으며, 그녀의 집안은 외교문제를 담당하였던 진골귀족이었다. 대가야는 백제의 東進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신라와 결혼동맹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신라로 하여

\* 이 글은 한국고대사탐구학회 제18회 월례발표회(2011.6.25)에서 발표한 ‘필사본 『화랑세기』를 통해 본 대가야사’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대가야박물관 학예연구사

금 대가야를 附庸國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양화공주의 사망과 함께 신라에 복속되고 말았다. 대가야와 신라의 결혼동맹은 대가야가 신라에 의해 멸망당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필사본 『화랑세기』, 대가야, 신라, 백제, 결혼동맹, 이뇌왕, 양화공주

## I. 머리말

1989년 필사본 『화랑세기』가 발견되면서,<sup>1)</sup> 2000년대 초까지 眞僞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되었다.<sup>2)</sup> 그 후 한동안 논란이 잠잠해 진듯하다가 근대에 들어와 재점화되는 양상이다.<sup>3)</sup> 2009년 3월 ‘한국고대사탐구학회’의 창립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책은 진위문제가 정리되지 않

- 
- 1) 1989년에 발췌본, 1995년에 필사본 『화랑세기』가 발견되었다. 보통 ‘필사본’ 『화랑세기』로 부르는데, 이재범은 ‘이종욱본’, 조범환은 ‘전사본’으로 부르기도 한다(이재범, 「『화랑세기』 ‘이종욱본’의 저자와 사료적 가치에 대하여」 『新羅史學報』 17, 2009 ; 조범환, 「召文國과 斯盧國과의 관계 변화과정과 그 영향」 『조문국의 성쇠와 지배세력의 동향』, 경북 의성군·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1). 그 외에 김기홍은 ‘발췌본과 모본’, 박남수는 ‘1본과 2본’ 등으로 호칭하였다(金基興, 「『화랑세기』 두 사본의 성격」 『歷史學報』 146, 2003 ; 박남수, 「신발견 朴昌和의 『花郎世紀』 殘本과 鄉歌 一首」 『東國史學』 43, 2007).
  - 2) 권덕영, 「필사본 『화랑세기』의 진위논쟁 10년」 『韓國學報』 99, 一志社, 2000.
  - 3) 金台植, 「世紀의 발견」 『花郎世紀』, 『韓國古代史探究』 6, 2010 ; 박남수, 위의 글, 2007 ; 이재범, 위의 글, 2009 ; 이재범, 「필사본 『화랑세기』 예원공조에 대한 검토」 『新羅史學報』 20, 2010a ; 李在範, 「필사본 『花郎世紀』의 敘事構造와 引用故事에 관한 一考察」 『韓國古代史探究』 6, 2010b ; 李鍾旭, 「『화랑세기』를 보는 눈」 『韓國古代史探究』 6,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0 ; 李熙眞, 「최근 제기된 『花郎世紀』 필사본 조작설에 대한 비판적 고찰」 『韓國古代史探究』 5, 2010.

은 까닭으로, 고대사 연구에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었다.<sup>4)</sup> 이러한 현상은 대가야사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sup>5)</sup>

대가야사 연구에 필사본 『화랑세기』를 활용한 경우도 있다. 이종욱은 필사본 『화랑세기』를 토대로 신라사 전반에 대해 다루면서, 화랑도 내의 加耶派, 가야의 신라에 대한 附庸的 대외관계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sup>6)</sup> 임범식은 5세 風月主 斯多舍조와 8세 文弩조의 대가야사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sup>7)</sup> 정동락은 ‘대가야의 멸망 시기와 加耶叛의 실상, 대가야의 왕실 世系’ 등의 문제를 검토했다.<sup>8)</sup> 한편, 이형기는 대가야 멸망 관련 기록인 ‘加耶叛’의 배경에 대해 8세 文弩조를 소개하면서 논란이 많아 이용하지는 않지만 주목해 보아야 한다고 했다.<sup>9)</sup> 그 외에 金台植은 문노의 계보를 작성하면서 대가야의 왕실 世系를 소개하였고,<sup>10)</sup> 이재범은 20세 禮元公조에 수록된 가야 건국연대(기원후 42년)를 『삼국유사』 편찬 이후에 지어진 이야기라고 하였다.<sup>11)</sup> 박문옥은 대가야는 아니지

- 
- 4) 김태식,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 김영사, 2002 ; 이종욱, 『화랑세기로 본 신라인 이야기』, 김영사, 2000 ; 이종학 등, 『花郎世紀를 다시 본다-7세기 신라 화랑들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 주류성, 2003 ; 조범환, 앞의 논문, 2011.
  - 5) 대가야사 연구의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저가 참조된다. 이영식, 「가야사 연구의 성과와 전망」 『한국고대사입문』 2, 신서원, 2006 ; 후보돈, 「새로운 大加耶史의 定立을 위하여」 『동·서 가야문화벨트의 역사적 의미와 그 활용방안 모색』, 고령군·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08 ; 남재우, 「식민사관에 의한 가야사연구와 그 극복」 『韓國古代史研究』 61, 2011 ;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 한국학연구원, 『대가야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나래디자인, 2012.
  - 6) 이종욱, 위의 책, 2000.
  - 7) 林範植, 「伽耶史 연구와 『화랑세기』」 『伽倻文化』 15, 2002.
  - 8) 鄭東樂, 「필사본 『花郎世紀』를 통해 본 대가야의 멸망과 王室 世系」 『韓國古代史探究』 9, 2011.
  - 9) 李炯基, 『大加耶의 形成과 發展 研究』, 景仁文化社, 2009, 129쪽 주)158.
  - 10) 김태식, 「사금갑(射琴匣) 설화의 역사적 이해」 『民俗學研究』 12, 2003, 129쪽.
  - 11) 이재범, 앞의 논문, 2010a, 170쪽.

만 금관가야계인 金庾信의 世系, 姻統과 婚姻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sup>12)</sup>

필사본 『화랑세기』에는 6세기 이후 대가야사의 전개과정에 대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삼국사기』 등에는 없는 새로운 사실들이거나, 기존의 사료를 통해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의문점들을 보완할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이 책에 기록된 대가야사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필자는 필사본 『화랑세기』의 진위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앞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필사본 『화랑세기』의 내용은 그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대가야사 연구에 있어서 나름대로 의미를 가진다고 여기고 있다. 만약, 일각의 주장처럼 僞書가 아니라면 중요한 사료로 활용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朴昌和에 의해 지어진 책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史實들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연구사적으로 음미해 볼 가치가 있다. 이런 점에서 필사본 『화랑세기』는 대가야사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글은 이러한 시각에서 대가야와 신라의 결혼동맹에 대한 기왕의 자료와 연구성과를 필사본 『화랑세기』와 서로 비교해 보았다.<sup>13)</sup> 이를 통해 필사본 『화랑세기』가 제시한 大加耶像이 기존의 자료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사료가 부족한 대가야사를 보완할 수는 없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그를 위해 필사본 『화랑세기』에서 제시한 자료와 논리에 의거하여 결혼동맹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 해석을 시도해 보았다.

12) 박문옥, 「『화랑세기』로 본 金庾信의 世系, 姻統과 婚姻」 『韓國上古史學報』 43, 2004. 그 외에 신형식(『新羅通史』, 주류성, 2004), 전기웅(『신라의 멸망과 경문왕가』, 혜안, 2010) 등도 필사본 『화랑세기』를 선택적으로 수용할 여지가 있다거나 허황하지만은 않다고 본다.

13) 필사본 『화랑세기』에는 멸망 이후 신라사회 내에서 활동한 가야계 인물들(대가야계와 금관가야계)에 대한 내용들도 수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회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사실, 이 글은 시작부터 뚜렷한 한계를 지닌 것이다. 필사본 『화랑세기』의 충분한 사료적 가치가 검증되지 못했기 때문이다.<sup>14)</sup>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 II. 기존의 사료로 본 결혼동맹

5세기에 들어와 크게 성장한 대가야는 荷知王이 479년(자비왕 22) 중국 南齊에 사신을 파견하여 輔國將軍本國王의 작호를 받았다.<sup>15)</sup> 그 2년 뒤인 481년(소지왕 3)에는 고구려·말갈의 신라 침공에 대응해 백제와 함께 원군을 파견하는<sup>16)</sup> 등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특히, 대가야는 5세기 중엽 경에는 합천, 거창, 함양을 지나 남원 동부지역까지, 그리고 백두대간을 넘어 금강 상류지역의 장수, 진안에까지 진출하였다. 5세기 후반에는 서쪽

14) 심사과정에서 이 논문이 지닌 한계에 대해 “이 논문이 필사본 『화랑세기』의 가치, 대가야와 신라의 결혼동맹이 지닌 성격과 의의 중 어느 곳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모호하다. 전자라면 필사본 『화랑세기』의 진위논쟁에 대한 입장을 유보한 것이 걸림돌이 되고, 후자라면 필사본 『화랑세기』에 관한 비중이 너무 커서 기존 연구 성과가 가진 결혼동맹의 의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타당한 지적이라 생각한다. 다만, 이 글은 필사본 『화랑세기』에 대한 사료비판과 진위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것이 보여주는 새로운 史實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에 목적이 있다. 아울러, 필사본 『화랑세기』가 역사적인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박창화의 창작물인지는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임도 지적하고 싶다.

15) 『南齊書』, 東夷傳 加羅國. 최근 연민수는 중국 南齊에 사신을 파견하여 輔國將軍·本國王의 작호를 받은 荷知를 금관국왕으로 파악하였다(연민수, 「加耶諸國과 東아시아」, 『한국고대사 속의 가야』, 혜안, 2001 ; 연민수, 「輔國將軍·本國王과 金官國」, 『韓日關係史研究』 38, 2011, 15~17쪽). 이는 일반적인 이해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금관국이 과연 남제에 사신을 파견하고 작호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국력을 유지하고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16) 『三國史記』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3년.

으로 섬진강 유역 일부와 순천만 일대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sup>17)</sup>

하지만, 6세기에 들어와 510년대 이후 백제의 東進으로 섬진강 유역을 둘러싸고 군사적 대립이 촉발되었고, 결국 倭와의 교역 주도권이 백제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자 대가야는 신라와의 결혼동맹을 통해 백제의 동진에 대항했다.<sup>18)</sup> 이는 그간 (대)가야의 신라 구원(481년), (대)가야가 꼬리가 5척인 흰 꿩을 보내(496년)는 등 지속적인 신라와의 외교교섭<sup>19)</sup>이 토대가 되었을 것이다. 아울러, 대가야는 신라(소지왕)와 백제(동성왕)의 결혼동맹(493년)을 참고하여, 대외적인 위기상황을 결혼동맹으로 벗어나 고자 했던 듯하다. 이처럼 신라와의 외교적 교섭과 백제와의 군사대립 등이 배경이 되어, 신라 法興王과 대가야 異腦王의 결혼동맹이 성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가야와 신라의 결혼동맹의 성립과 결렬, 남부가야 제국의 신라편입 등 그 전개과정과 추이에 대해서는 이미 전문적인 연구가 있다.<sup>20)</sup> 따라서 새삼스레 그에 대한 자세한 논증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 여기서는 필사본 『화랑세기』와 기존의 사료를 비교하고, 기존의 사료에서는 알 수 없었던 사실들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양국의 결혼동맹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와 『일본서기』, 『신증동국여지승람』(『釋順應傳』) 등을 통해 그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17) 李炯基, 앞의 책, 2009, 118쪽.

18) 白承忠, 「가라·신라·결혼동맹의 결렬과 그 추이」 『부대사학』 20, 1996, 3~5쪽 ; 이근우, 「熊津時代 百濟와 加耶」 『百濟文化』 37, 2007, 48~52쪽 ; 朱甫暉, 「새로운 大加耶史의 定立을 위하여」 『동·서 가야문화벨트의 역사적 의미와 그 활용방안 모색』, 고려군·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08, 48~52쪽 ; 노중국, 「6세기 전반 대가야의 왕위 교체와 정책의 변화 - 異腦王에서 嘉悉王으로의 왕위교체를 중심으로 -」 『韓國古代史研究』 66, 2012, 256~266쪽.

19) 권주현, 「『三國史記』에 보이는 4~5세기의 加耶와 三國과의 관계」 『新羅文化』 38, 2011.

20) 白承忠, 위의 논문, 1996 ; 노중국, 위의 논문, 2012.

- (A)-① 법흥왕 9년(522) 봄 3월, 加耶國王이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하므로, 왕이 伊滄 比助夫의 누이(比助夫之妹)를 그에게 보냈다.(『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법흥왕 9년)
- ② 「釋順應傳」에 이르기를 “大伽倻國의 月光대자는 正見母主의 10세손으로, 그의 아버지는 異惱王인데 신라에 구혼하여 夷絜 比枝輩의 딸(比枝輩之女)을 맞아 태자를 낳았으니, 이녀왕은 惱窒朱日의 8세손”이라 하였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29, 고령군 건치연혁)
- ③ 繼體 23년(529) 3월, 이로 인하여 加羅는 신라와 結儻하였고 日本에 원한이 생기게 되었다. 加羅王이 新羅王女를 맞아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다. 신라가 처음 王女를 보낼 때, 100명을 함께 보내어 종자로 삼게 하였다. (가라왕이) 이를 받아 들여 여러 縣에 나누어 안치하고 신라의 의관을 입도록 하였다. 阿利斯等은 그들이 變服하였다고 화를 내며 불러서 돌려보냈다. 이에 신라는 크게 부끄러워하여 왕녀를 돌아오게 하려고, “전에 그대가 장가드는 것을 받아들여 내가 즉시 허락하였으나 지금 이미 이와 같이 되었으니 왕녀를 돌려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가라의 已富利知伽(상세하지 않다.)가 대답하여, “이미 부부로 짝지어 졌는데 어찌 헤어질 수 있겠는가. 또한 아이가 있는데 버리면 어디로 가겠는가?”라고 말하였다. 드디어 지나가는 길에 刀伽, 古跋, 布那牟羅 등 3개의 성을 함락시키고, 또한 北境의 5성을 차지하였다.(『일본서기』, 繼體紀 23년 3월)

(A)는 각각 신라, 가야, 왜(또는 백제)의 관점에서 대가야와 신라의 결혼동맹에 관련된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그 중 『일본서기』의 내용이 가장 구체적이다.<sup>21)</sup> 먼저, 결혼동맹의 성립 시기는 522년(A-①), 529년(A-③)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서기』는 결혼동맹과 그 추이를 함께 묶어서 설명한 것이므로, 동맹이 체결된 시기는 522년이 맞을 듯하다. 또, 결혼동맹을 신라 법흥왕에게 요청한 왕은 가야국왕(A-①) 혹은 가라왕(A-③)으로 되어 있지만, 대가야의 異惱王(A-②)이었다. 즉, 대가야와 신라의 결혼동맹은 522년 3월에 대가야의 이녀왕이 청혼하자 신라 법흥왕이 수용함

21) 白承忠, 앞의 논문, 1996, 5쪽.

으로써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동맹은 왕녀를 따라온 종자들의 변복 문제로 529년 3월경 신라의 일방적인 파기로 파국을 맞게 되었다.(A-③)

다음으로 이녀왕과 혼인한 여인에 대해서는 伊滄 比助夫의 누이(A-①), 夷檠 比枝輩의 딸(A-②), 新羅王女(A-③)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는 『삼국사기』와 崔致遠의 「석순웅전」이 서로 다른 계통의 자료를 인용했기 때문인지,<sup>22)</sup> 다른 이유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또, 이들 자료 중 어느 것이 더 신빙성이 있을지도 궁금하지만 알 수 없다. 비조부의 ‘누이’, 또는 ‘딸’ 중 어느 것이 맞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찬은 진골귀족 이상이 가질 수 있는 관등이므로, ‘비조부의 누이 혹은 딸’을 ‘신라왕녀’로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sup>23)</sup> 그렇지만 비조부가 어떤 인물인지, 왜 하필 이녀왕이 비조부의 누이 혹은 딸과 혼인한 이유도 알 길이 없다.

이녀왕과 신라왕녀 사이에는 月光太子가 태어났는데(A-②), 혼인한지 1~2년 뒤에 태어났던 듯하다. 하지만, 월광태자 이외에 다른 자녀가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 또, 529년 결혼동맹이 파기되고 난 후 신라에서 왕녀를 돌려달라고 했으나, 이부리지가(이녀왕?)는 헤어질 수 없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신라왕녀는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았던 듯한데, 계속 대가야의 왕궁에 남아 있었는지도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양국의 결혼동맹 체결은 대가야(이녀왕)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대가야의 입장에서는 불평등한 요소가 내재되어 있었던 듯하다. 즉, 대가야가 혼인을 청하고 신라에서 수락한 점, 왕녀를 따라온 종자들에게 신라의 의관을 입도록 한 점, 신라에서 동맹을 파기하고 왕녀를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였으나 대가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한 사실 등에서 이를 감지할 수 있다.<sup>24)</sup> 그렇다면 신라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22) 김태식 교수는 “비조부의 누이동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金泰植, 「大加耶의 世系와 道設智」 『震檀學報』 81, 1996, 18쪽)

23) 白承忠, 앞의 논문, 1996, 6쪽.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대가야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입장을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결혼동맹 전후 신라와 대가야의 외교관계가 어떠한지, 신라는 결혼동맹을 전후하여 양국관계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는 잘 알 수 없다.

(A)의 사료들을 통해 522년 신라와 대가야 간에 체결된 결혼동맹에 대해서 그 배경이나 결렬과정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결혼동맹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의문점을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예컨대, 신라왕녀와 관련된 문제들로 그녀의 이름은 무엇인지, 비조부의 누이인지 딸인지, 왜 이녀왕과 혼인하게 되었는지, 이녀왕과의 사이에는 월광대자 외에 또 다른 자식은 없었는지 등은 알 수 없다. 더불어 대가야와 신라 사이의 외교관계도 양국의 결혼동맹 체결 전후 어떠한 인식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하지만 역시 알 수 없다.

### Ⅲ. 異腦王과 결혼한 新羅王女： 伊滄 比助夫의 누이인 兩花공주?

『삼국사기』 등 기존의 사료에서 대가야와 신라의 결혼동맹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 그런데 필사본 『화랑세기』에는 양국의 결혼동맹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 있다.

(B) ①8世 文弩는 比助夫公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加耶國의 文華公主이다. 혹은 문화공주는 野國王의 貢女라고 한다. 「好助公記」에는 北國王女라고 되

24) 정동락, 「于勒의 생애와 활동 - 정치적 측면을 중심으로 -」 『民族文化論叢』 42,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09, 283~284쪽.

어 있는데, 문노는 스스로 가야가 外祖라고 말하였으니, 北國은 대개 가야의 북국일 것이다. ㉠法興大帝가 加耶를 南·北으로 나누고, 異腦를 北國王으로 삼고 兩花公主를 妻로 삼게 하고, 靑明을 南國王으로 삼았다. ㉡얼마 되지 않아 異腦의 숙부인 贊失이 이녀를 내쫓고 自立하였다. 그 때 好助公이 가야에 사신으로 가서 책망했다. ㉢이보다 앞서 贊失은 野國王의 사위가 되었는데, 文華公主는 생각하건대 틀림없이 찬실의 딸일 것이다. 처음 호조공의 妾이 되었는데, 比助夫公과 더불어 몰래 통하여 (문노)공을 낳았다. 공은 어려서부터 擊劍을 잘 했고, 義氣를 좋아했다. 가야가 反하자 斯多唵이 동행을 청했다. 문노가 말하기를 “어찌 어미의 아들로 外祖의 민을 괴롭힐 수 있겠는가?”했다. 마침내 가지 않았다. ... 앞서 호조공이 가야의 일을 잘하여 자주 사신으로 갔다. 비조[부]공 역시 [그 뒤를] 이었는데, 공을 세워 靑華공주의 딸인 靑珍공주에게 장가들었다. 청진공주가 법흥제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비조[부]공은 요직에 발탁되었다. 그 권세가 七寵臣과 더불어 막상막하였다. ... 建元 2년(537) 비조공을 兵部令으로 삼아 군대를 통솔하게 했다. ... (문노공은) 開國 7년(557) 國原(충주)으로 나갔고, 또 北加羅를 정벌하였다. ... ㉣贊하여 말한다. : 가야의 外孫이다. ... ㉤世系 : 아버지는 比助夫이고 할아버지는 好助이며, 증조는 比知이다. 호조의 어머니는 곧 登欣公의 누이인 助里이다. 또한 [6자 결락] 善兮황후의 妙心の 일로 폐하여 살게 되고 [6자 결락] ?監과 상통하여 比助夫와 兩花公主를 낳았다. 比助夫 또한 好助공의 첩인 文華공주와 통하여 공을 낳았다. 文華공주는 北國王의 딸이다. 또는 野國王의 딸이라고 한다. 역사 기록에서는 그 世系를 잃어 버렸다.(필사본 『화랑세기』 8世 文弩<sup>25</sup>)

(B)는 필사본 『화랑세기』에서 제8세 風月主였던 文弩의 활동과 세계를 적기한 것이다. 문노조에 결혼동맹과 관련된 내용이 수록된 것은 그의 아버지가 비조부이고, 어머니인 문화공주가 북국왕녀 즉, 대가야의 왕녀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기왕의 사료인 (A)에서는 알 수 없었던 양

25) 이종욱, 『대역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 -』, 소나무, 2005, 116~139쪽. 필사본 『화랑세기』의 역주는 이종욱 이외에 최근 신재홍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신재홍, 『화랑세기 역주』, 태학사, 2009). 여기서는 이종욱의 역주본을 참조하였다. 이하 인용문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국의 결혼동맹에 대한 사실들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B)에서 제시된 문노의 세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문노의 증조부는 비지, 증조모는 조리이다. 조부는 호조, 조모는 ?감이며, 이들 사이에서 비조부와 양화공주가 태어났다. 그리고 비조부와 북국왕녀(혹은 야국왕의 공녀?)인 문화공주 사이에서 문노가 태어났다. 원래 문화공주는 비조부의 아버지인 호조의 첩이었으나, 비조부와 사통하여 문노를 낳았던 것이다. 그리고 비조부의 누이인 양화공주가 바로 북국(대가야)왕인 이녀와 결혼했다고 한다.

한편, 필사본 『화랑세기』의 17세 閻長조와 9세 秘宝郎조 등에는 이녀왕과 양화공주 사이에 月華宮主가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월화공주는 진흥왕의 小妃가 되어 天柱공과 德明공주 등을 낳았다.

- (C)-① 세계 : (廉長공의) 아버지인 天柱공은 진흥대제의 아들이다. 그 어머니는 月華공주로 가야 이녀왕의 딸이다. 곧 우리 兩花공주의 딸이다. 진흥의 小妃로 들어가 천주공을 낳았다.(필사본 『화랑세기』 17世 廉長)<sup>26)</sup>
- ② (秘宝郎은) 다시 진흥대왕의 딸 德明공주를 아내로 맞았다. 덕명공주의 어머니는 곧 가야국 월화공주이다. 다섯 아들과 세 딸을 낳았다.(필사본 『화랑세기』 9世 秘宝郎)<sup>27)</sup>

그런데 필사본 『화랑세기』에서는 이녀왕과 양화공주 사이에 月光太子가 태어났다는 기록은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5세 풍월주 사다함조에 신라가 대가야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월광이 등장할 뿐이다.<sup>28)</sup> 그렇지만, 앞의 사료[(A)-②]를 통해 이녀왕과 신라왕녀 사이에서 월광이 태어났음은

26) 이종욱, 앞의 책, 2005, 259쪽.

27) 이종욱, 위의 책, 2005, 143쪽.

28) 박창화가 필사본 『화랑세기』를 토대로 그린 것으로 보이는 ‘계보도(상장돈장)’에서는 양화와 이녀왕 사이에서 월광과 월화가 태어난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필사본 『화랑세기』 내에는 월광의 탄생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없다.

파악할 수 있다.

한편, 필사본 『화랑세기』의 사다함조에는 “道設智가 月光과 더불어 영토를 다투었다”<sup>29)</sup>고 하여, 두 사람은 다른 인물이었음을 제시하고 있다.<sup>30)</sup> 도설지는 필사본 『화랑세기』를 활용한 기왕의 연구에서 이녀왕과 양화의 자식일 것이라고 하였다.<sup>31)</sup> 이는 필사본 『화랑세기』와 함께 발견된 계보도인 ‘上章敦詳’에 의거한 것이다. 즉, ‘계보도(상장돈장)’에는 양화와 이녀왕 사이에 월광과 月華, 양화와 贊失王 사이에 도설지가 태어난 것으로 그려 놓았다.<sup>32)</sup>

‘계보도(상장돈장)’는 필사본 『화랑세기』를 토대로朴昌和가 1930년경에 작성한 것이지만, ‘계보도’는 필사본 『화랑세기』와 차이가 나는 부분도 가끔 확인된다고 한다. 즉, 자비왕의 부인을 巴胡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파호가 아니라 그녀의 딸이 되어야 하며, 20세 禮元을 圓光의 아들로 그렸으나 禧利공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계보도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때문에 『화랑세기』를 찾았던 박창화가 그것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계보도를 그렸으나, 오류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sup>33)</sup>

이러한 착오의 사례는 대가야와 관련된 자료에서도 보인다. 즉, 필사본 『화랑세기』에는 호조와 ?감이 상통하여 비조부와 양화가 태어난 것으로 서술되어 있으나, ‘계보도’에서는 호조와 禧兮황후 사이에서 이들이 출생한 것으로 그려져 있다. 이는 선혜와 관련된 기사가 비조부와 양화의

29) 필사본 『화랑세기』 5세 사다함(이종욱, 앞의 책, 2005, 61쪽).

30) 林範植, 앞의 논문, 2002, 195쪽.

31) 김태식은 “양화는 이녀가 숙부인 찬실에게 쫓겨나자 찬실과 살면서 도설지를 낳았다”고 하였다.(김태식, 앞의 논문, 2003, 129쪽).

32) 『上章敦詳』, 9-11쪽 및 15쪽.

33) 이종욱, 앞의 책, 2000, 463-464쪽. 한편, ‘계보도(상장돈장)’에 대해서는 김태식의 시론적인 검토가 있다(김태식, 「두 갈문왕(기보·습보), 같은 여인(조생), 그리고 한 아들(지증) : 또 하나의 『화랑세기』, 『상장돈장』 검증을 위한 시론」 『충북사학』 16, 2006).

출생 기록 앞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착오이거나, 박창화가 추정하여 계보도를 그려 넣었을 가능성도 있다.

‘계보도’에는 양화가 이녀왕과 결혼하여 月光과 月華를 낳았고, 찬실이 이녀를 축출하고 자립한 뒤에는 찬실과 살면서 道設智를 낳았던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필사본 『화랑세기』에서는 양화와 이녀 사이에 월광이, 양화와 찬실 사이에서 도설지가 출생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계보도’를 그대로 따르기에 주저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sup>34)</sup>

그런데 (B)-㉔에서 이녀왕을 쫓아내고 자립한 찬실이 야국왕의 사위가 되어 문화공주를 낳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 5세 사다함조에는 도설지가 찬실을 이은 嗣王으로 언급되었고, 도설지가 野女와 함께 野人을 거느리고 月光과 다투었다고 기록되어 있다.<sup>35)</sup> 현전하는 필사본 『화랑세기』만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도설지는 찬실과 야국왕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월광과 도설지는 숙질지간으로 파악된다.<sup>36)</sup>

이상 필사본 『화랑세기』를 통해 비조부와 양화는 호조와 ?감 사이에서, 월광과 월화는 이녀왕과 양화공주 사이에서, 도설지와 문화는 찬실왕과 야국왕녀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문노의 세계로 본 대가야의 왕계’를 그려보면 <표 1>과 같다.<sup>3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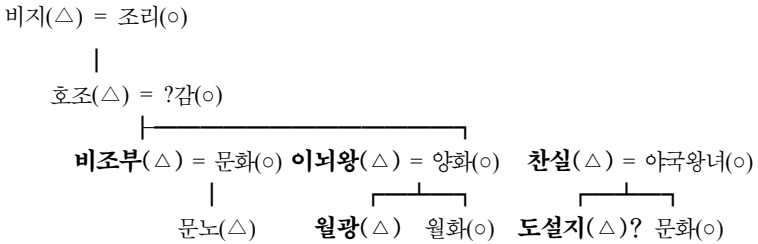
34) 이 글에서는 ‘계보도(상장돈장)’의 이용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실제 필사본 『화랑세기』의 내용에서 확인되는 사실만을 토대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35) 이종욱, 앞의 책, 2005, 61쪽.

36) 만약 박창화의 ‘계보도(상장돈장)’에 의거한다면 도설지와 월광은 어머니는 모두 양화이고, 아버지가 각각 이녀와 찬실인 ‘異父 형제지간’이 되지만 따르지 않았다.

37) 필사본 『화랑세기』 8世 文弩와 김태식, 앞의 논문, 2003, 129쪽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표 1〉 文弩의 世系로 본 대가야의 왕계



그러면 이녀왕과 결혼한 양화와 비조부가 어떤 인물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필사본 『화랑세기』에서는 이녀왕과 결혼한 신라여인을 비조부의 ‘딸’이 아니라 ‘누이’인 ‘兩花공주’였던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필사본 『화랑세기』가 최치원의 「석순웅전」이 아니라, 『삼국사기』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같은 계통의 자료를 참고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찬 ‘비조부의 누이’인 양화는 『일본서기』에서는 신라 ‘왕녀’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 “황급한 처지에 있던 대가야의 청혼에 대해 신라는 ‘王女’ 보다는 ‘귀족의 女’를 시집보냈을 것”으로 파악기도 한다.<sup>38)</sup> 그런데 (B)에서는 양화 ‘공주’로 제시되어 있다. ‘공주’라는 표현은 양화의 아버지인 호조와 상통한 ?감이 신라의 왕실여인이었기 때문이었던 듯하다. (B)-㉔에서는 “善兮황후의 妙心の 일로 폐하여 살게 되고 [6자 결락] ?監과 상통하여 비조부와 양화공주를 낳았다”고 하였다.

‘善兮황후의 妙心の 일’이 어떤 사건인지는 관련 연구가 제출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선혜는 『삼국유사』의 射琴匣 설화와 관련된 毗處王(소지왕)의 宮主로,<sup>39)</sup> 비처왕비인 선혜가 불교 승려로 생각되는 妙心과 사통한 것이 탄로되어 왕후 자리에서 폐위되고 神宮의 祭主가 된 사건과 관련이

38) 白承忠, 앞의 논문, 1996, 6쪽.

39) 『삼국유사』 권1, 射琴匣.

있다고 한다.<sup>40)</sup> 이 ‘묘심의 사건’이 호조와 상통한 ?감의 기록 앞에 갑자기 수록되어 있다. 자세한 이유는 아쉽게도 결락으로 인해 알 수 없다. 혹시 ?감이 비조왕비인 선혜황후의 딸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을까?<sup>41)</sup>

기존의 사료에서 ‘비조부의 누이(혹은 딸)’를 『일본서기』에서 ‘신라왕녀’로 표현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찬은 신라의 진골귀족만이 가질 수 있는 최고 관등이었기 때문에, 그 누이를 신라왕녀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왔다.<sup>42)</sup> 이렇게 보아도 어긋나지는 않겠지만, 필사본 『화랑세기』에서는 양화의 어머니인 ?감이 선혜황후의 딸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필사본 『화랑세기』의 5세 사다함조에는 양화공주는 “561년에薨하였다”고 한 후, 신라가 대가야를 공격하여 진압하는 기사가 이어진다.<sup>43)</sup> 이로부터 그녀의 죽음이 대가야가 멸망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요컨대, 필사본 『화랑세기』에서는 ‘신라왕녀’를 ‘양화공주’라고 밝혀 놓았다. 그리고 호조와 ?감(선혜황후의 딸?) 사이에 태어난 이찬 ‘비조부의 누이’라고 한다.<sup>44)</sup> 그녀는 522년 이뇌왕과 결혼하였으며, 슬하에 월광과 월화를 두었다. 아마 월광은 결혼 직후인 523년 즈음에, 월화는 그 후

40) 김태식, 앞의 논문, 2003, 129~132쪽.

41) ‘계보도(상장돈장)’에서는 선혜와 호조가 상통하여 비조부와 양화가 태어났던 것으로 그려져 있다. 하지만, 이는 착오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사본 『화랑세기』의 서술에 의거하여 ?감을 선혜황후의 딸로 추측해 보았다. 참고로 ‘계보도(상장돈장)’에서는 선혜와 소지왕 사이에 保道, 선혜와 妙心, 사이에 吾道, 선혜와 洪器 사이에 起鳥, 선혜와 好助 사이에 비조부와 양화 등이 태어난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42) 정동락, 앞의 논문, 2009, 283쪽.

43) 이종욱, 앞의 책, 2005, 61쪽.

44) 『삼국사기』와 필사본 『화랑세기』에서 이뇌왕과 결혼한 신라왕녀인 ‘양화’를 ‘호조의 딸’이 아니라 ‘비조부의 누이’로 언급한 것은 무언가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최치원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비지배의 딸’로 기록했던 듯하다.

에 태어났을 법하다. 양화는 529년 양국의 결혼동맹이 파탄된 후에도 이녀왕이 신라로 돌려보낼 수 없다고 하여 신라로 귀국하지 않았다. 그 후 남편인 이녀왕이 숙부였던 贊失에게 왕위를 찬탈당하였다. 이에 아버지인 호조가 찬실을 책망하기 위해 신라에서 사신으로 왔지만, 결국 이녀왕은 복위되지 못하였다. 아마, 찬실에 의해 제거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로 인해 아들인 월광은 찬실과 야국왕녀의 아들로 보이는 도설지에게 밀려 왕위에 오르지 못하였다.<sup>45)</sup> 딸인 월화는 신라로 시집가 진흥왕의 小妃가 되었다. 그녀는 561년에 죽었고, 신라는 대가야를 공격하여 완전히 정복하였다. 이처럼 양화공주는 대가야와 신라의 정략적인 결혼동맹으로 이녀왕에게 시집와서 평탄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과 함께 대가야는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고 말았다.

다음, 이찬 비조부에 대해서는 493년(소지왕 15) 신라와 백제의 결혼동맹 때 소지왕이 “이찬 比智의 딸을 보냈다”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기록에서 보이는 ‘비지’와 동일한 인물이며, 단양적성비와 居柒夫전 등에 나오는 ‘比次夫’일 가능성이 제기되어 있다. 그리고 신라의 對백제·가야 결혼정책에 왕족급인 이 귀족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셈이라고 한다.<sup>46)</sup> 하지만, 필사본 『화랑세기』에서는 비지와 비조부는 서로 다른

45) 최근 노중국은 6세기 전반 대가야의 왕위교체를 검토하면서 이녀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왕을 가실왕으로 보고, 가실왕은 이녀왕의 동생, 도설지왕은 가실왕의 아들로 파악하고 있다(노중국, 앞의 논문, 2012, 271~272쪽). 이는 필사본 『화랑세기』에서 찬실(가실왕으로 추정)을 이녀왕의 숙부, 도설지를 찬실의 아들로 제시한 것과 논리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다.

46) 백승충은 “시기적으로 20년의 차이가 있으나, 比助夫(比枝輩)와 比智는 음통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만약 동일인이라고 한다면 신라의 대백제·가야 결혼정책에 왕족급인 이 귀족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한편 단양적성비와 居柒夫전에 ‘比次夫’라는 비슷한 인명이 보이는데, 이 인물은 550년 전후에 활약하고 있다”고 하였다(白承忠, 앞의 논문, 1996, 6쪽, 주8). 김태식 교수도 적성비에 나오는 比次夫와 비조부를 동일인

인물이며, 오히려 비조부는 비지의 손자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sup>47)</sup> 즉, 비지와 비조부는 祖孫간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좀 더 합리적이기도 하다.

비조부와 양화는 비지와 조리→호조와 ?감으로 이어지는 집안출신이였다. 그렇다면 신라 법흥왕이 비지→호조로 이어지는 가계의 양화공주를 이녀왕에게 시집보낸 이유도 추정이 가능해 진다. 우선, 소지왕 때 비지의 딸을 백제 동성왕에게 시집보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비지의 손녀를 대가야에 시집보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B)-㉔·㉕에서 “호조공이 가야의 일을 잘하여 자주 사신으로 갔고, 비조부 역시 그 뒤를 이었다”고 하였다. 특히, 호조는 이녀의 숙부인 찬실이 이녀를 내쫓고 자립했을 때에도 사신으로 가서 책망했던 인물이었다. 이해보아 호조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나오는 (대)가야의 신라 구원(481년)과 (대)가야가 신라에 흰 꿩을 보내(496년)는 등의 외교문제<sup>48)</sup>에도 관여했을 법하다.

더불어 비조부는 靑華공주의 딸인 靑珍공주와 결혼하여 요직에 발탁되어 그 권세가 막강했다고 한다. 특히, 537년(법흥왕 24)에는 兵部丞으로 군대업무를 통솔기도 하였다.<sup>49)</sup> 하지만 진흥왕이 즉위하고 只召태후가 집정하자 크게 등용되지 못해, 바둑 따위를 두면서 소일했다고 한다.<sup>50)</sup> 이처럼 비지→호조→비조부로 이어지는 가문은 신라조정에서 최고의 위상을

으로 보고 있다(金泰植, 앞의 논문, 1996, 24쪽). 그러나, 550년의 단양적성비 건립 당시 비차부는 아간지 즉 아찬에 머물고 있어 서로 다른 인물일 것으로 판단된다.

47) 이점에 대해서는 김태식이 이미 지적한 바 있다(김태식, 앞의 논문, 2003, 129쪽). 필사본 『화랑세기』를 통해 볼 때 백제 동성왕과 결혼한 상대는 비지와 조리의 딸이다.

48)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3년 및 18년.

49) 신라는 법흥왕 4년(517) 4월 처음으로 兵部를 설치했다고 한다.(『삼국사기』 권 4, 신라본기4, 법흥왕 4년)

50) 이종욱, 앞의 책, 2005, 119쪽.

차지하면서, 주로 백제·(대)가야 등과의 외교를 담당했던 집안이었다. 이런 이유로 호조의 딸이자 비조부의 누이인 ‘양화’가 이녀왕과 혼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sup>51)</sup> 요컨대, 필사본 『화랑세기』에서는 이녀왕과 결혼한 신라왕녀는 ‘비조부의 누이’인 ‘양화공주’였고, 비조부의 가문은 대대로 신라의 對 대가야·백제 외교업무를 담당했던 집안이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 IV. 결혼동맹 이후 신라의 대가야 인식 : 대가야는 신라의 附庸國?

필사본 『화랑세기』의 8세 문노조에 의하면 비조부는 이미 靑珍공주와 결혼한 상태에서, 아버지인 호조공의 첩으로 신라에 온 文華공주와 사통하여 문노를 낳았다고 한다. 그런데 (B)에서는 문화공주가 ‘野國王의 貢女’ 또는 ‘호조공기’를 인용하여 ‘北國王女’라는 두 가지 설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서 문노가 스스로 가야를 ‘外祖(외가?)’라고 했으므로 북국은 가야의 북국이며, 이녀왕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한 찬실의 딸일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문화공주가 야국왕녀인지 북국왕녀인지는 세계를 잃어버려 확정하지 못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문노의 어머니인 문화공주의 출신을 언급하면서 가야의 北國과 南國, 그리고 野國 등의 국명과 범흥대제가 가야를 남·북으로 나누었다는 내용이다. ‘야국’에 대해서는 倭國으로 보고 5~6세기 가야지역에 왜인들이 들어와 있었고, 가야가 그들을 거느렸던 것으로 추

51) 비조부의 가문이 백제·대가야와의 결혼정책을 주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백승충의 추정(白承忠, 앞의 논문, 1996, 6쪽, 주)8)은 필사본 『화랑세기』와 일정 부분 부합하는 지적이라 할 수 있다.

정하고 있다.<sup>52)</sup> 또, 문화공주가 ‘야국왕의 공녀’ 혹은 ‘북국왕녀’라는 것도 찬실이 야국왕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하였을 경우, 문화공주는 야국공주이기 때문에 두 경우 모두 잘못된 표현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sup>53)</sup> 최근의 고고학적 연구 성과에 의하면 일본열도 내에서 다수의 대가야계 유물이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sup>54)</sup> 대가야와 야국(왜)의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는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더불어 양국 왕실 간의 혼인이 성사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러한 내용은 『일본서기』 등 기존의 사료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필사본 『화랑세기』에서만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흥왕이 가야를 남·북으로 나누고 이녀왕을 북국왕으로 하여 兩花공주를 처로 삼게 하고, 靑明을 남국왕으로 삼았다”거나, “찬실이 이녀를 내쫓고 자립하자, 호조공이 [가야에] 사신으로 가서 책망했다”고 하는 기록도 주의를 끈다. 이는 필사본 『화랑세기』 이외에 다른 사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들에 대해 당시의 정황을 자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가야의 호칭으로 등장하는 남국·북국의 문제이다. 가야 諸國들의 국명은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대가야와 금관가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sup>55)</sup> 대가야의 경우 『삼국사기』,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大加耶’ 혹은 ‘大伽倻’, 『일본서기』에서는 대체로 ‘加羅’로 표기된다. 금관가야의 경우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서 首露를 ‘南加耶’의 시조라고 하였으

52) 野國에 대해 김태식은 잘 알 수 없다고 하였고(김태식, 앞의 논문, 2003, 129쪽), 이종욱은 ‘倭’로 보았는데(이종욱, 앞의 책, 2000, 439쪽), 이종욱의 견해가 타당해 보인다.

53) 이종욱, 위의 책, 2000, 439쪽.

54) 고령군·경북대, 『日本列島 속의 大加耶文化』, 2009 ; 대가야박물관, 『일본 속의 대가야문화－일본에서 찾은 대가야 유물－』, 2010.

55) 金泰植,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1권, 푸른역사, 2002, 40~52쪽 ; 권주현, 『개정판 가야인의 삶과 문화』, 혜안, 2009, 25쪽, <표-1> ‘가야소국들의 이름’.

며,<sup>56)</sup> 『일본서기』에도 ‘南加羅’가 자주 언급된다.<sup>57)</sup> 그 외에 양국을 각각 上·下加羅로도 지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58)</sup> 가야를 남과 북으로 구분하여 인식했음은 기존의 사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필사본 『화랑세기』에서와 같이 가야를 북국, 남국으로 구분해 부르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필사본 『화랑세기』에는 가야의 호칭에 대해서 다양한 용례들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8세 문노조에는 加耶國, 加耶外孫, 北國, 南國, 北加羅 등이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 15세 庾信공조에는 加耶, 金官加耶, 金官人 등이 등장한다. 특히, 금관가야의 시조인 수로왕에 대해서는 ‘首露靑齋王’이라고도 하였다.<sup>59)</sup> 이러한 용례들 중 가야의 ‘남국’과 ‘북국’, ‘북가라’ 등의 용례<sup>60)</sup>는 필사본 『화랑세기』에서만 보인다.

특히, ‘금관’가야와 ‘수로청예왕’이라는 용어가 흥미롭다. 金大問은 703년(성덕왕 3) 漢山州 도독이 되었다고 한다.<sup>61)</sup> 따라서 그가 『화랑세기』를 찬한 것은 8세기를 전후한 시기였을 것이다.<sup>62)</sup> ‘금관국’과 ‘수로청예’라는 용례는 최치원의 「석순응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D) 崔致遠의 「釋順應傳」을 살펴보니, “伽倻山神 正見母主가 天神 夷毗訶之

56) 『삼국사기』 권41, 열전 제1, 金庾信 上.

57) 『일본서기』 繼體紀 23년 3월 및 欽明紀 2년 4월 등.

58) 『삼국사기』 권32, 잡지 樂 加耶琴.

59) “金官加耶는 首露靑齋王에서 비롯되었다”(필사본 『화랑세기』 15세 유신공 ; 이종욱, 앞의 책, 2005, 243쪽)

60) 주보돈은 『일본서기』 神功紀 49년에 보이는 加羅 속에는 北加羅라는 의미가 함께 깃들여 있었던 것 같다고 한다(주보돈, 앞의 논문, 2008, 35쪽 : 『영남학』 13, 34쪽).

61) 『삼국사기』 권46, 열전6, 金大問.

62) 이종욱은 필사본 『화랑세기』를 토대로 “김대문은 681년에서 687년 사이에 『화랑세기』를 저술하였다. 이 책은 540년부터 681년 동안 화랑들의 대표 화랑인 풍월주 32명의 전기이다”고 하였다(이종욱, 앞의 책, 2000, 474쪽).

에게 감응되어 大伽倻王 惱室朱日과 金官國王 惱室靑齋 두 사람을 낳았다. 뇌질주일은 伊珍阿跋王의 별칭이고 청예는 首露王의 별칭이다”고 하였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29, 고령현 건치연혁)

(D)는 최치원이 「석순웅전」에서 소개하는 대가야 중심의 건국신화이다.<sup>63)</sup> 「석순웅전」은 900년경에 찬술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64)</sup> 이 자료에서 최치원은 대가야의 뇌질주일과 금관가야의 뇌질청예는 형제간이며, 뇌질청예는 수로왕의 별칭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삼국사기』 김유신조나 『삼국유사』 「가락국기」 등에서는 ‘수로’로 나오며, ‘청예’라는 용어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필사본 『화랑세기』의 ‘수로청예왕’이라는 용어는 「석순웅전」의 ‘수로’와 그의 별칭인 ‘뇌질청예’를 합성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대가야 건국신화의 성립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논란이 있다. 즉, 이러한 형태의 시조신화는 7세기 후반 이후 또는 최치원에 의해 조작되었을 것이라는 견해와 5세기 후반 당시에 구성된 것이라는 의견으로 서로 갈리고 있다. 또, 후자의 경우에도 金官國이라는 용어는 7세기 후반 이후의 표기법이 반영된 것이라고 하였다.<sup>65)</sup> 만약, 후자의 견해에 따라 대가야 건국신화가 7세기 후반에 성립된 것이라고 본다면, ‘수로청예왕’이라는 용어도 7세기 후반부터는 사용될 개연성을 가지게 된다. 김대문이 『화랑세기』를 찬한 것은 8세기 전후였으므로, 그가 대가야의 건국신화에 대해 알 수도 있었을 법하다. 그렇다면, 필사본 『화랑세기』에 나오는 가야의 남국과 북

63) 가야의 건국신화는 최치원의 「석순웅전」에서 제시한 대가야 중심의 건국신화와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소개된 금관가야 중심의 건국신화 등 두 계통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64) 「석순웅전」은 최치원이 해인사에 머무르던 시기와 관련해 볼 때, 해인사의 중창 직후인 900년경에 찬술되었을 것이라고 한다(金福順, 『新羅華嚴宗研究』, 民族社, 1990, 169쪽).

65) 이에 대해서는 김태식 교수가 이미 상세하게 검토한 바 있다(金泰植, 앞의 논문, 1996, 6~10쪽).

국, 북가라 등의 용어도 사용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보인다. 가야에 대한 또 다른 용례인 남국과 북국, 북가라 등을 필사본 『화랑세기』를 통해 새롭게 확인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러면 (B)-㉠의 “법흥왕이 가야를 남·북으로 나누고, 이녀를 북국왕으로 칭명을 남국왕으로 삼았다”는 내용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임범식은 “가야가 남가야와 북가야로 갈라져 있었다고 하는 것은 『삼국사기』 열전 김유신전에 ‘남가야’라고 하는 기록을 토대로 기존에도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나, 어느 사료에도 그 탄생과정이나 원인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한 것이 없었는데, 『화랑세기』에서는 그것이 신라의 법흥대왕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고 하였다.<sup>66)</sup> 이종욱도 “법흥왕이 가야에 대한 통제를 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신라와 가야의 국제 관계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sup>67)</sup> 이러한 주장은 법흥왕이 실제로 가야를 남·북으로 나누었으며, 가야를 남·북으로 구분해 인식한 연원이 법흥왕대에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흥왕이 가야를 남·북으로 나누고, 이 국가들을 실제로 통제할 수 있었는지는 검토를 요한다.

우선, (B)-㉠은 문노의 어머니인 문화공주의 출신과 문노가 태어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제시된 자료이다. 따라서 이 내용은 문노의 입장, 더 나아가 신라측의 시각에서 기술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 이녀왕을 북국왕으로 하고 양화공주를 처로 삼게 했다는 것으로 보아, 대가야와 신라의 결혼동맹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대가야의 문화공주가 신라로 시집오게 된 것은 이녀왕과 양화공주가 결혼하였는데, 숙부인 찬실이 이녀왕을 내쫓고 왕위를 찬탈하자 양화의 아버지인 호조가 사신으로 파견되어 이를 책망하였고, 이 과정에 찬실이 자신의 딸

66) 林範植, 앞의 논문, 2002, 195쪽.

67) 이종욱, 앞의 책, 2000, 437쪽.

인 문화를 호조의 첩으로 보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본다면 “법흥왕이 이녀를 북국왕으로 삼았다”는 것은 양국의 결혼동맹을 신라중심으로 기술한 결과가 아닌가 여겨진다.

다음으로 “청명을 남국왕으로 삼았다”는 대목이다. 법흥왕대 금관가야의 왕을 『삼국사기』<sup>68)</sup>나 『삼국유사』의 「왕력」과 「가락국기」<sup>69)</sup> 등에서 확인해 보면 鉗知王(492~521)과 仇衡(亥)王(521~532) 등이 있을 따름이다. 필사본 『화랑세기』의 15세 庾信공조에는 鉗知와 仇衡(衡?) 등이 등장한다. 즉, 유신공의 세계에서 “鉗知는 5형제가 있었는데 모두 우리나라(신라)의 骨品이 있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고, (나라)안에서 우리나라 조정에 부용했다(內附于我)”고 하며, “결지는 신라에서 出忠 각간의 딸 淑氏를 허락하여 보내자, 왕후로 삼고 구충을 낳았고, 구충은 桂鳳의 딸인 桂花를 왕후로 삼아 武力과 武得을 낳았다”고 하였다.<sup>70)</sup>

이처럼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물론 필사본 『화랑세기』 등에서도 (B)-㉔의 자료 이외에는 법흥왕대 금관가야의 왕 중에는 ‘청명’이 찾아지지 않는다. 이는 필사본 『화랑세기』 내에서 보이는 모순점이기도 하다. 다만, 필사본 『화랑세기』에서는 521년(법흥왕 8) 결지의 뒤를 이어 구충이 즉위하였고, 그는 신라 德知공의 딸인 桂鳳의 딸 桂花와 혼인했다고 한다. 혹시 결지나 구충의 또 다른 이름이 ‘청명’이 아닌지 모르겠다. 김구해가 532년(법흥왕 19) 항복하자 신라에서는 上等의 벼슬과 본국을 食邑으로 삼게 했다고 한다.<sup>71)</sup> 따라서 청명을 남국의 왕으로 삼았다는 것은 구해에게 本國을 食邑으로 준 사실을 언급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지만, 남국왕 ‘청명’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다.

68) 『삼국사기』 권41, 열전 제1, 金庾信 上.

69) 『삼국유사』 권1, 王曆 ; 『삼국유사』 권2, 駕洛國記.

70) 이종욱, 앞의 책, 2005, 241~243쪽.

71)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법흥왕 19년.

한편, 필사본 『화랑세기』 15세 유신공조의 “內附于我”라는 언급에서 신라는 겸지왕 이후 금관가야를 자신의 부용국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라는 겸지왕 이후부터 금관가야를, 522년(법흥왕 9) 대가야와의 결혼동맹 이후에는 대가야를 부용국으로 인식했던 것은 아닐까? 이는 물론 당시의 실질적인 양국의 외교관계를 반영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렇지만, 신라의 입장에서는 가야를 대표하는 두 국가에 각각 왕실의 여자를 시집보낸 사실을 토대로, 가야를 자신들의 부용국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다.

이상 (B)에서 “법흥대제가 가야를 남·북으로 나누었다”는 기록은 신라의 입장에서 금관가야·대가야와의 혼인을 계기로 두 나라를 부용국으로 삼았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추측해 보았다. 실제, 필사본 『화랑세기』에는 가야를 ‘신라의 부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sup>72)</sup> 즉, 20세 禮元公조에는 “가야는 본래 우리의 附庸이었고, 지금은 이미 우리나라에 편입되었다”고 하였다.<sup>73)</sup> 이는 648년 唐에 사신으로 갔던 예원과 당나라 宰相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구절로, 이에 대해 가야가 신라의 부용이라는 인식은 당시의 것이 아니라고 보기도 한다.<sup>74)</sup> 그런데 신라가 가야를 부용국으로 삼았다는 기록은 『隋書』(65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신라가 강성해져서 백제를 습격하고 迦羅國을 부용으로 삼았다”<sup>75)</sup>는 것이다. 이는 가야의 멸망과 관련된 기록이므로,<sup>76)</sup> 법흥왕 때의 사정을 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법흥왕대 신라가 가야를 부용국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사료가 『삼국사기』에도 전한다.

72) 이에 대해서는 이종욱도 지적하였다(이종욱, 앞의 책, 2000, 435-436쪽).

73) 이종욱, 앞의 책, 2005, 285쪽.

74) 이재범, 앞의 논문, 2010a, 170쪽.

75) 『隋書』 권81, 열전 46, 東夷 新羅전.

76) 권주현, 앞의 책, 2009, 51-52쪽.

(E) 법흥왕 11년(524) 9월에 왕이 남쪽 경계로 巡幸하여 地境을 개척하였는데, 加耶國王이 來會하였다.(『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법흥왕 11년)

(E)는 대가야와 신라가 결혼동맹을 체결한 지 약 2년 뒤인 524년(법흥왕 11)의 일이다. 법흥왕이 ‘南境拓地’할 때 ‘來會’한 가야국왕의 실체에 대해서는 대가야 혹은 금관가야의 왕인지 서로 의견이 갈려있다. 우선, 대가야 왕으로 보는 이유는 이 기사가 결혼동맹 직후에 일어난 일이고,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6세기대의 가야는 대체로 대가야국을 지칭하고 있으며, 내회한 이유는 상호 영토를 확인하기 위한 것 등이라고 지적된다. 반면, 금관가야의 왕으로 보는 견해는 신라의 南境에 비중을 두며, 두 나라는 멸망 이전부터 정치적으로 동질관계에 있었던 사실 등에 기초하고 있다.<sup>77)</sup>

여기서 ‘내회’의 ‘會’는 “霸者의 諸侯가 중심이 되어 여러 제후들과 會盟하였던 의례에서 보이며, (E)의 ‘會’도 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고”, 또 ‘내회’는 “상하관계가 분명하며 어느 정도의 신속관계가 확실해진 상태를 나타내는 외교형식의 용례로 이해함이 타당하다”고 한다.<sup>78)</sup> 즉, ‘내회’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부용적인 위치에 있을 때 사용된 외교용어라는 것이다.<sup>79)</sup> “법흥왕이 가야를 남·북으로 나누고, 이녀를 북국왕으로 칭명을 남국왕으로 삼았다”는 (B)-㉠의 표현은 두 나라를 부용국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증좌일 듯하다.

『삼국사기』 본기에서 가야는 481년(소지왕 3) 신라에 침략한 고구려·말갈 군사를 막기 위해 백제와 함께 구원병을 파견하였다.<sup>80)</sup> 그리고 496

77) 白承忠, 앞의 논문, 1996, 19쪽.

78) 李永植, 「加耶諸國의 外交形式」, 『新羅末 高麗初의 政治·社會變動』, 신서원, 1994, 300쪽.

79) 李炯基, 앞의 책, 2009, 177쪽.

80)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3년.

년(소지왕 18)에 꼬리 길이가 5척인 白雉를 보냈으며(送),<sup>81)</sup> 522년에 신라에 사신을 보내 請婚하여 이찬 비조부의 누이를 보냈다(送).<sup>82)</sup> 여기서 ‘送’이나 ‘請婚’ 등의 표현은 양국을 대등한 관계의 외교형식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용어라고 한다.<sup>83)</sup> 『삼국사기』에서는 신라와 가야와의 외교관계를 표현하면서, 522년 결혼동맹 때까지는 대등한 관계를 보여주는 외교형식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결혼동맹 이후인 524년에는 ‘내회’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가야를 부용국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억측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522년 결혼동맹 이후, 신라는 가야를 상하관계의 부용국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이녀왕과의 결혼 이후 신라왕녀(양화공주)가 대가야로 시집을 때 동행한 종자 100여인을 여러 縣에 안치하고, 이들로 하여금 신라의 의관을 입도록 했다. 이는 대가야의 입장에서로는 굴욕적인 일이었겠지만 수용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阿里斯等과 같은 인물은 그들이 變服하였다고 반발함으로써 결혼동맹이 결렬되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 또, 신라에서 결혼동맹의 파기를 요구하면서 왕녀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대가야에서는 헤어질 수 없다는 저자세를 보였다. 이러한 제반 상황 역시 신라가 대가야를 부용국으로 인식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대가야에서도 신라의 이러한 인식을 더욱 고착화하는데 일조하고 있었다. 즉, 찬실이 이녀왕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하자, 신라의 호조공이 사신으로 와서 책망했다는 것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 물론 호조가 사신으로 파견된 것은 신라에서 시집 온 양화공주의 남편인 이녀왕이 쫓겨난 상황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내정 간섭에 해당한다. 찬실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방면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을 것

81)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18년.

82)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법흥왕 9년.

83) 李永植, 앞의 논문, 1994, 293쪽 및 299쪽 ; 권주현, 앞의 논문, 2011, 56쪽.

으로 추정된다. 그 협상의 내용은 아쉽게도 필사본 『화랑세기』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그 중에는 이녀왕에게 시집은 양화공주의 처우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을 법하다.<sup>84)</sup> 그와 더불어 자신과 야국왕녀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보이는 문화공주를 호조의 첩으로 보냈다. 이는 자신의 왕위를 인정받고자 했던 정치적인 조치 중의 하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역시 대가야의 입장에서는 굴욕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찬실의 즉위 시점은 529년 결혼동맹의 파탄 이후, 문화공주와 비조부 사이에서 문노가 태어나는 538년 사이였을 것이다. 아마도 530년대 전반 무렵에 왕위를 찬탈하여 즉위했던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다.

대가야로서는 백제의 동진이라는 국가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신라와 결혼동맹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신라가 대가야를 부용국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말았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대가야 내부로부터도 불평등한 결혼동맹에 대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대가야의 아리사 등이 신라로부터 온 종자가 변복을 했다고 하면서 돌려보냈던 것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신라와의 동맹도 온전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결국 529년경에 파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녀왕은 이러한 외교적인 실책과 내부의 반발 등으로 숙부인 찬실에게 왕위를 찬탈 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찬실의 왕위 찬탈과 문화공주를 호조의 첩으로 보낸 사건은 대가야가 신라의 부용국이라는 인식을 더욱 고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찬실은 자신의 왕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신라와 점차 거리를 두고, 개혁정치를 추진하면서 친백제적인 외교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찬실은 가야금을 창제하고 우

84) 찬실과 호조의 협상 내용 중에는 양화의 처우를 이전과 같이 유지하면서 대가야의 정국 운영에 참여하는 것 등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다(조경란 선생의 계시에 따름).

특으로 하여금 12곡을 작곡케 한 가실왕으로 추정된다.<sup>85)</sup>

## V. 맺음말

필자는 필사본 『화랑세기』의 진위 여부에 대해 아직 뚜렷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또 그를 둘러싼 논란에 발을 담그고 싶은 생각은 더 더욱 없다. 하지만, 이 책이 대가야사와 관련된 새로운 視覺과 史實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어찌면 필사본 『화랑세기』가 1930~40년대에 朴昌和라는 인물이 쓴 僞書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사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면, 연구사나 사학사적으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522년에 체결된 대가야와 신라의 결혼동맹에 대해 기존의 사서와 필사본 『화랑세기』를 비교·검토해 보았다. 그를 통해 필사본 『화랑세기』가 제시한 당시의 大加耶像이 어떠한지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6세기에 들어와 백제의 東進에 대응할 필요에서 대가야는 522년 신라와 결혼동맹을 체결하였다. 대가야의 異腦王과 결혼한 신라왕녀에 대해 기존의 사료에서는 伊滄 比助夫(比枝輩)의 ‘누이’ 혹은 ‘딸’로 혼란스럽게 전한다. 필사본 『화랑세기』에서는 이찬 비조부의 ‘누이’인 ‘兩花공주’라고 밝히고 있다.

필사본 『화랑세기』에서 이녀왕과 결혼한 양화공주에 대한 많은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녀는 好助와 ?監 사이에 태어났으며, 522년 이녀왕과 결혼하여 슬하에 月光과 月華를 두었다. 529년경 신라와의 결혼동맹이 깨진 후 남편인 이녀왕이 숙부인 贊失(가실왕?)에게 왕위를 찬탈당하였다.

85) 鄭東樂, 앞의 논문, 2011, 32~35쪽.

그로 인해 아들인 월광은 찬실과 野國王女의 아들로 보이는 道設智에게 밀려 왕위에 오르지 못하였다. 그리고 딸인 월화는 신라로 시집가 진흥왕의 小妃가 되었다. 그녀는 561년에 사망하였고, 그 직후 신라는 대가야를 공격하여 완전히 멸망시키고 말았다. 양화의 죽음과 대가야의 멸망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한다.

그리고 比智→호조→비조부·양화로 이어지는 가문은 신라조정 내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한 진골귀족 집안이었다. 특히, 비지는 493년(소지왕 15) 신라와 백제의 나제동맹에 딸을 동성왕에게 시집보냈다. 비조부의 가문은 백제·대가야와의 외교적인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배경으로 호조의 딸이자 비조부의 누이인 양화공주가 대가야의 이녀왕과 결혼하였던 것이다.

필사본 『화랑세기』에는 “법흥왕이 가야를 南·北으로 나누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구절은 신라의 입장에서 금관가야·대가야와의 혼인을 계기로 두 나라를 附庸國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즉, 신라는 522년 이녀왕과의 결혼동맹 이전에는 양국관계를 상호 대등하게 보았으나, 결혼동맹 체결 이후에는 대가야를 부용국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점에서 522년 대가야와 신라의 결혼동맹은 이후 대가야가 신라에 병합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화랑세기』에 의하면 522년 대가야의 이녀왕과 결혼한 신라왕녀는 ‘비조부의 누이’인 ‘양화공주’였으며, 그녀의 집안은 백제·대가야와의 외교문제를 담당하였던 진골귀족이었다. 대가야는 백제의 東進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신라와 결혼동맹을 체결하였다. 그렇지만, 신라로 하여금 ‘부용국’으로 인식케 하였고, 양화공주의 사망과 함께 신라에 복속되고 말았다. 결혼동맹은 대가야가 신라에 멸망당하는 단초를 제공하였던 셈이다.

한편, 필사본 『화랑세기』 내에는 서로 모순되는 내용들이 함께 수록되

어 있다. 예컨대, “법흥왕 때 加耶를 남·북으로 나누고, 異腦를 北國王으로 靑明을 南國王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여기서 북국은 대가야, 남국은 금관가야를 지칭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필사본 『화랑세기』 속에는 금관가야의 ‘청명’이라는 왕명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그 대신 仇衝(衡)王 혹은 鉗知王 등이 기록되어 있다. 왜 갑자기 청명이 등장하였는지는 의문일 수밖에 없다. 또, 斯多含이 貴幢裨將에 임명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 외에도 文弩의 대가야에 대한 상반되는 행동, 首露靑齋王이라는 용어 등등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사례들이 가끔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모순점들은 향후 필사본 『화랑세기』의 사료적 가치를 논할 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까지 眞僞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필사본 『화랑세기』가 전하는 대가야상을 운위한다는 자체가 어떠한 무의미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이 책에서 전하는 내용이 당시의 상황을 약간이나마 반영한 것이라면, 소중한 사료를 외면하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필사본 『화랑세기』에서 사료가 부족한 대가야사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을 듯하다.

학계에서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삼국사기』 초기 기록이나 『일본서기』를 사료로 거의 활용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근래에는 『삼국사기』는 물론이고 『일본서기』조차도 사료비판을 통해 활발하게 이용하면서, 연구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교훈삼아 지금부터라도 필사본 『화랑세기』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최근 이루어지는 필사본 『화랑세기』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눈여겨 볼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 【참고문헌】

### 1. 저서

- 김복순, 『新羅華嚴宗研究』, 民族社, 1990.
- 이종욱, 『화랑세기로 본 신라인 이야기』, 김영사, 2000.
- 金泰植,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1권, 푸른역사, 2002.
- 金台植,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 김영사, 2002.
- 이종학 등, 『花郎世紀를 다시 본다-7세기 신라 화랑들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 주류성, 2003.
- 이종욱, 『대역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 소나무, 2005.
- 고령군·경북대, 『日本列島 속의 大加耶文化』, 2009.
- 권주현, 『개정판 가야인의 삶과 문화』, 해안, 2009.
- 신재홍, 『화랑세기 역주』, 태학사, 2009.
- 이형기, 『大加耶의 形成과 發展 研究』, 景仁文化社, 2009.
- 대가야박물관, 『일본 속의 대가야문화-일본에서 찾은 대가야 유물-』, 2010.
-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 한국학연구원, 『대가야사야 연구의 현황과 과제』, 나래디자인, 2012.

### 2. 연구 논문

- 이영식, 「加耶諸國의 外交形式」 『新羅末 高麗初의 政治·社會變動』, 신서원, 1994.
- 金泰植, 「大加耶의 世系와 道設智」 『震檀學報』 81, 1996.
- 백승충, 「가라·신라 ‘결혼동맹’의 결렬과 그 추이」 『부대사학』 20, 1996.
- 권덕영, 「필사본 『화랑세기』의 진위논쟁 10년」 『韓國學報』 99, 一志社, 2000.
- 연민수, 「加耶諸國과 東아시아」 『한국고대사 속의 가야』, 해안, 2001.
- 임범식, 「伽耶史 연구와 『화랑세기』」 『伽耶文化』 15, 2002.
- 金台植, 「사금갑(射琴匣) 설화의 역사적 이해」 『民俗學研究』 12, 2003.
- 김기홍, 「『화랑세기』 두 사본의 성격」 『歷史學報』 146, 2003.
- 박문옥, 「『화랑세기』로 본 金庚信의 世系, 姻統과 婚姻」 『韓國上古史學報』 43, 2004.
- 金台植, 「두 갈문왕(기보·습보), 같은 여인(조생), 그리고 한 아들(지증) : 또 하나의 『화랑세기』, 『상장돈장』 검증에 위한 시론」 『충북사학』 16, 2006.

- 이영식, 「가야사 연구의 성과와 전망」, 『한국고대사입문』 2, 신서원, 2006.
- 박남수, 「신발견 朴昌和의 『花郎世紀』 殘本과 鄉歌 一首」, 『東國史學』 43, 2007.
- 이근우, 「熊津時代 百濟와 加耶」, 『百濟文化』 37, 2007.
- 주보돈, 「새로운 大加耶史의 定立을 위하여」, 『동·서 가야문화벨트의 역사적 의미와 그 활용방안 모색』, 고령군·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08.
- 정동락, 「于勒의 생애와 활동 - 정치적 측면을 중심으로 -」, 『民族文化論叢』 42,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09.
- 이재범, 「『화랑세기』 ‘이종욱본’의 저자와 사료적 가치에 대하여」, 『新羅史學報』 17, 2009.
- 金台植, 「世紀의 발견, 『花郎世紀』」, 『韓國古代史探究』 6, 2010.
- 이재범, 「필사본 『화랑세기』 예원공조에 대한 검토」, 『新羅史學報』 20, 2010a.
- 이재범, 「필사본 『花郎世紀』의 敍事構造와 引用故事에 관한 一考察」, 『韓國古代史探究』 6, 2010b.
- 이종욱, 「『화랑세기』를 보는 눈」, 『韓國古代史探究』 6, 2010.
- 이희진, 「최근 제기된 『花郎世紀』 필사본 조각설에 대한 비판적 고찰」, 『韓國古代史探究』 5, 2010.
- 권주현, 「『三國史記』에 보이는 4-5세기의 加耶와 三國과의 관계」, 『新羅文化』 38, 2011.
- 남재우, 「식민사관에 의한 가야사연구와 그 극복」, 『韓國古代史研究』 61, 2011.
- 연민수, 「輔國將軍·本國王과 金官國」, 『韓日關係史研究』 38, 2011.
- 조범환, 「召文國과 斯盧國과의 관계 변화과정과 그 영향」, 『조문국의 성쇠와 지배세력의 동향』, 경북 의성군·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1.
- 鄭東樂, 「필사본 『花郎世紀』를 통해 본 대가야의 멸망과 王室 世系」, 『韓國古代史探究』 9, 2011.
- 노중국, 「6세기 전반 대가야의 왕위 교체와 정책의 변화 - 異腦王에서 嘉悉王으로의 왕위교체를 중심으로 -」, 『韓國古代史研究』 66, 2012.

Abstract

# The Matrimonial Alliance between Daegaya and Silla Kingdom Viewed through the Manuscript “Hwarang Segi”

Jung, Dong-lak

The manuscript of the historical record “Hwarang Segi(花郎世紀)” records the matrimonial alliance between Daegaya and Silla Kingdom, the fall of Daegaya, the world of Daegaya royal families and trends of the Daegaya people after the collapse. The record offers new viewpoints and historical facts on the history of Daegaya lacking historical data. Unless the book is a counterfeit, its content should be quoted as important data for research on Daegaya. On the contrary, even if the book was written by the historian Park Chang-hwa(朴昌和, 1895~1962), it suggests new historical facts about Daegaya, thus deemed meaningful in the history of research or historical studies. The authenticity of the manuscript “Hwarang Segi” is important, but apart from that, its existence means there is not without a new possibility to invigorate independent research on Daegaya. In that regard, this study compares and reviews existing historical books on the matrimonial alliance established in 522 AD between Daegaya and Silla Kingdom and aims to understand the image of Daegaya suggested in “Hwarang Segi.” The royal woman of Silla Kingdom that married King Inoe(異腦王) of Daegaya in 522 was Princess Yanghwa(兩花), who came

from a family of Jingol(眞骨), the kingdom's second highest-ranking aristocrats in charge of foreign diplomacy. Daegaya formed the matrimonial alliance with Silla in order to resolve a national crisis caused by Baekje Kingdom's eastward march. But, Daegaya was understood as Silla's subordinate state and eventually submitted to Silla, following the death of Princess Yanghwa. It can be said that the matrimonial alliance between Daegaya and Silla Kingdom offered the onset of Daegaya's collapse under Silla Kingdom.

Key Words : the Manuscript Hwarang Segi, Daegaya, Silla, Baekje, Matrimonial Alliance, King Inoe, Princess Yanghwa

논문 투고일 : 2016. 10. 26  
 게재 확정일 : 2016. 12. 02

심사 완료일 : 2016. 11. 30